

업계 동정

● 서부사료(주)

온라인에서 트루라이프를 만나보세요!

- 트루라이프 공식 홈페이지 오픈

초일류식품종합그룹으로 나아가는 (주)트루라이프(대표이사 정세진)가 지난 5월말 공식 홈페이지(www.etruelife.co.kr)를 개설해 업계 및 고객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06년 10월 서부사료(주)에서 분리된 신설법인인 (주)트루라이프는 True Food, True Life의 슬로건으로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며, 정직·성실·사랑·봉사·창의성을 기업 가치관으로 삼고 있다. 홈페이지는 ▲기업소개 ▲사업소개 ▲고객지원 ▲홍보센터 ▲

채용센터 등으로 나뉘지며, 특히 온라인채용시스템을 강화해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다.



(주)트루라이프 홈페이지 메인 화면

서부사료(주) 창립 38주년,

새로운 꿈, 뜨거운 열정, 도전하는 서부가족!

서부사료(주)(대표이사 정세진, www.sbfeed.co.kr)가 창립 38주년을 맞아 (주)트루라이프(www.etruelife.co.kr) 임직원과 함께 창립기념식 및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새로운 꿈, 뜨거운 열정, 도전하는 서부가족’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대공원에서 진행된 창립기념식에는 장기근속자 및 우수기사 포상 및 사랑의 베품시장이 열려 구성원들의 호응을 받았다. 사랑의 베품시장은 전 구성원들이 고급와인, 그릇세트, 다리미 등 다양한 물품을 기증하고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이날 모금된 소정의 금액은 아프리카 난민 구호를 위해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구호단체 월드비전에 기부되었다. 이를 통해 서부사료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인 지속적인 나눔 경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범을 보였다.

150여명의 응원전으로 시작한 한마음 체육대회는 단체줄넘기, 릴레이 팔씨름, 오늘먹는계란

업계 동정

지키기, 닭싸움, 키플피구, 단채줄다리기, 미션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서부가족의 단합된 기량을 한껏 발휘했다. 특히 오늘먹는계란 지키기는 준비된 각종 재료를 이용해 계란을 보호하는 장치를 설계하여 구성원의 창의력과 아이디어 대결을 보여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정세진 대표이사는 기념축사로 “True Life를 추구할 때 True People이 되고, 이는 True Food를 만들어 낸다. 우리 모두 초일류식품종합그룹을 달성하여 인류의 건강과 행복 추구에 기여하자”고 강조했다.

1969년 설립된 서부사료(주)는 2006년 10월 (주)트루라이프를 신설해 현재 초일류식품종합그룹을 목표로 도약하고 있다.



사진1.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서부사료/트루라이프 구성원들



사진2. 버룩시장 물품을 구입하고 모금을 하고 있는 구성원

● 흥성사료공업(주)

전자동 전분 분석기 도입

흥성사료공업(주)(대표이사 정태원)는 최신 전자동 전분 분석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배합사료 제품 설계에 있어 전분 분석은 원료의 에너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다. 그동안 재래식 방법으로 분석해 오던 전분 분석은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의 변이가 심하여 정확한 원료의 에너지 평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자동 전분 분석기를 도입함으로써 빠른 시간내에 원료내의 정확한 에너지 함량뿐만 아니라 가축 체내에서의 에너지 이용성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은 물론 고품질 사료 생산에 힘써온 흥성사료는 지난 2월초 네델란드 스코트 호스트 사료연구소와 기술제휴를 체결하였고, 이번 전자동 전분 분석기를 도입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원료평가로 양질의 사료를 생산,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선진사료

대표자 변경

(주)선진사료의 대표이사가 지난 6월 18일부로 다음과 같이 변경됐다.

△ 대표이사: 함봉삼 → 정정택

● 한국유업(주)

포송공장 준공식

2007년 4월 27일 오후 2시 당사 계열사인 한국유업주식회사의 포송공장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대한제분 임직원, 대한사료 임직원, 한국사료협회 임직원, 사료업계 및 축산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날 한국유업(주) 김덕명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이번 준공으로 최신설비 도입과 위생적인 작업환경, 엄격한 선



진관리 시스템으로 품질과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어 고객에게 양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유업은 선진기업으로 발돋움 하기위해 기술개발과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며, 항상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업 계 동 정

● (주)두산 백두사료

한미FTA를 대비한 비육우 경영자 세미나 성료

한미FTA로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비육시장이 고급육으로 새로운 출로를 찾고 있는 가운데, 비육우사료의 절대적인 강자인 (주)두산 백두사료(부사장 정진항)가 김포/강화지역 비육우 경영자 70여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4월25일 강화 소재 명진부페에서 백두사료는 김포/강화 비육우 세미나를 통해 자사가 개발한 비육우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입증해 보였다.

이날 행사는 우수농장에 대한 시상, 백두 고급육 프로그램 제시, 축산 시황과 전망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한미FTA 발효 후 생존전략에 초점이 집중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백두사료 이충한 지역부장은 한우의 생리에 최적으로 설계되고 천연육색증진제와 대사성 질병감소제를 보강한 한우고급육 프로그램(투플러스 시리즈)과 이미 전국적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 받은 육우프로그램(라이브스페셜 시리즈)을 소개하였다.

김포 강화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육우 경영자들이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한미FTA 발효 이후의 비육우시장 전망 및 우수 경영사례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 (주)에스씨에프

인천사무소 이전

(주)에스씨에프 인천사무소가 다음과 같이 이전되었다.

- 인천사무소 이전일자: 2007년 5월 18일 ~ 5월 19일까지
- 이전주소: 충남 당진군 순성면 중방리 660-1(우343-894)
- 전화 및 팩스번호: 전화 041)363-6383 ~ 93

팩스 041)363-6399

● (주)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

출정식 및 CI 선포식 개최

축산업의 태동기인 1969년에 설립되어 39년간 축산농가의 사랑 속에 뿌리 깊게 정착되어 온 서울사료가 지난 4월 1일 영남지역의 희망사료와 통합을 시작으로 (주)서울사료에서 새로운 사명인 (주)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번 희망사료와의 통합으로 인천, 천안, 김제, 경산, 경주공장을 중심으로 5개 지역의 하치장으로 확장되면서 전국적인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신사명의 의미는 한국축산의 진정한 희망이 되고자 하는 뜻과 의지를 담고 있으며, 새로운 CI는 희망의 매개체인 파랑새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27일-28일 CI 선포

식 및 출정식에는 새로운 사명, CI소개, 사업방향 및 비전 선포, 신개념 제품개발, 물류 및 생산 HACCP 운영, 고객지원방안, 신제품 '포인트100큐' 출시 및 자돈캠페인 등으로 진행되었다.

(주)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는 새로운 감각과 젊은 마케팅, 축종별로 전문화된 조직,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어 FTA시대에 한국축산의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소명의식과 축산농가와 함께 끝까지 한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

양돈신제품 “포인트100큐” 출시

지난해부터 (주)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가 양돈제품에 전력을 기울여 포인트100, 체크100, 엑스텐 사료 등의 출시에 이어 이번 자돈신제품인 '포인트100큐'도 출시하였다.

현재 많은 자돈 폐사율로 고민을 안고 있는 양돈농가의 심정속으로 들어가 “자돈을 살려내지



업 계 동 정

못하면 우리 삶의 터전도 없다”는 마음의 각오를 되새기며 이번 자돈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었다.

이에 ‘포인트100큐’는 신개념의 고급원료 및 새로운 고급원료인 농축섬유소를 첨가하여 기호성과 소화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 특징이며, 많은 농장에서 자돈 구간에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는 알레르기성 설사를 줄이기 위해 농축섬유소를 첨가한 것도 특징점으로 꼽히고 있다.

사료 형태면에서도 2mm의 미니 클럼블을 만들어 갓난돼지의 사료 섭취율을 높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